

로맨스, 여성, 가부장제의 함수관계에 대한
독자반응비평
- 제니스 A. 레드웨이의 『로맨스 읽기: 여성, 가부장제와
대중문학』을 중심으로

이정옥*

1. 서론
2. 로맨스 읽기, 가부장적 일상으로부터의 도피와 감정적 구원
3. 로맨스 서사, 보상적 교환성 충족과 여성 유토피아적 판타지
4.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로맨스 연구의 의미와 과제
5. 결론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제니스 레드웨이의 『로맨스 읽기: 여성, 가부장제와 대중문학』(1984)을 중심으로 로맨스 연구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고찰했다. 이 책은 문화연구와 문학연구를 조합하여 여성독자들의 로맨스 독서의 의미를 고찰하고 로맨스 텍스트를 분석한 점에서 지금까지 대표적인 로맨스 연구서로 손꼽히고 있다.

제니스 레드웨이는 여성독자공동체를 대상으로 로맨스 독서 행위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고찰했다. 즉,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토대로 여성들의 로맨스 독서가 부담스러운 가부장적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탈출의 해방감을 추구하며 정서적 구원을 안겨주는 ‘보상문학’이라는 점을 밝혀

*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대학 조교수

났다. 여성들이 선호하는 로맨스는 ‘만남 → 시련 → 회복 → 해피엔딩’이라는 4단계와 13개의 서사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항상 미성숙한 여주인공의 정체성 불안에서 출발하여 여성의 능력으로 배려 깊은 남자로 변모한 남자주인공에 의해 여성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받는 행복한 결함으로 끝을 맺는 공식을 유지한다. 따라서 로맨스는 ‘여성 유토피아적 판타지’를 추구하며 여성을 가부장제와 화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당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로맨스독서는 ‘여성적 읽기’이며, 로맨스는 여성의 삶과 가부장제의 함수관계를 그린 문학이라는 점을 공유한다. 다만 누구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여성적 유토피아의 판타지가 무엇인가에 관한 관점의 차이를 보일 뿐이다.

최근 들어 여성들의 삶의 조건과 여성독자들의 의식과 상상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 유토피아적 판타지도 이전과 현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가부장적 체제 내 여성의 삶은 여전히 모순적이며, 여성들의 모험적 상상력은 서브컬처와 같은 대안공간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로맨스란 무엇인가, 아울러 로맨스 연구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이다.

(주제어: 로맨스, 로맨스 읽기, 가부장제, 여성독자공동체, 여성 유토피아적 판타지, 보상 문학, 보상적 교환, 가부장적 결혼)

1. 서론

12세기 프랑스문학에서 출발한 로맨스는 오랫동안 낭만적 사랑에 관한 이야기로 굳어져왔다. 사랑이 단순히 열정이나 감정이 아니라 혁명

적인 지평을 새롭게 여는 행위라면, 운명과도 같은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은밀한 연애담은 기존의 관습과 경직된 인식의 테두리를 넘어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모험의 서사를 추구해왔다. 문학(fiction)이 부조리한 현실이나 사회적 압박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자들이 만들어낸 상상력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보면, 모든 문학은 로맨스 서사를 포괄하고 있다.¹⁾ 이런 까닭에 로맨스는 중세 유럽에서 탄생한 이래 서구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양상과 양태로 변용과 변주를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성과 대치되는 낭만성이라는 문학적 특질로 흡수되어 훨씬 후대에 탄생한 추리나 판타지, SF 등 여타 장르에 비해 문학적 위상이 확고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문학에 포괄된 로맨스 서사와 장르로서의 로맨스는 엄연히 다르다. 문학장 내에서 하나의 독립된 장르문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관되게 유지되는 특정 서사양식의 확보는 물론, 그것을 향유하는 두터운 독자층 형성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한 시대 변화와 사회 변동에 따른 독자들의 취향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새로운 작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하위 장르를 거느리는 생산성과 개방성이 필수적이다. 이런 점에 입각해보면 로맨스는 문예공론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7,8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인 로맨스소설로 알려진 사무엘 리처드슨의 <파멜라>(1740)가 출간된 이래 여성 독자들이 향유하는 ‘여성성을 위한 문학’으로 확대됐고, 제인 오스틴과 브론테 자매 등 여성 작가들이 대거 등장했던 19세기 빅토리아시대에 이미 ‘여성성에 의한 문학’으로 특화되기 시작했다.²⁾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여성 작가의

1) Kristin Ramsdell, *Romance Fiction: A Guide to the Genre*,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2012, p.6; 질리안 비어, 『로망스』, 문우상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6-10쪽, 90-101쪽 참조.

2) James Van Horn Melton, *The Rise of the Public in Enlightenment Europe*, Cambridge

작품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출판사가 등장함에 따라 로맨스를 향유하는 독자층이 확산되면서 장르문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페미니즘의 확산과 더불어 로맨스를 생산하고 수용하는 여성들의 의식과 취향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로맨스는 주변 장르와 혼종성을 이루거나 혹은 색다른 제재와 결합하면서 다양한 하위 장르로 분화되어 왔다.

이처럼 로맨스가 오랜 역사를 거쳐 부단히 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장르문학으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추리나 SF 등과 달리 그 위상이 허약한 배경에는 195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 미국 비평가들에 의한 ‘로맨스 이론’이 크게 작용했다. 대표적인 로맨스 이론가로 알려진 리처드 체이스(Richard Chase)는 ‘인간의 경험을 자세하게 충실히 묘사하는 영국의 사실주의적 소설(novel)과 달리 19세기 미국의 로맨스(romance)³⁾는 실제와 상상을 혼합하여 형식과 소재 면에서 사실주의적 소설의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찾는 낭만적 경향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로맨스를 영국의 소설과 미국의 소설을 구별 짓기 위한 용어로 굴절시켰던 미국의 로맨스 이론은 1980년대 이후 그 적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과 비판에 직면했으며, 1990년대에 들어서 마침내 파산선고에 이르렀다.⁴⁾

그럼에도 이 국수적이고 협소한 미국의 로맨스 이론은 로맨스를 포함한 대중문학 논쟁을 불러 일으켰으며, 역설적으로 로맨스에 대한 학문

University Press, 2001, pp.81-193 참조; Kristin Ramsdell, *Romance Fiction: A Guide to the Genre*, Santa Barbara: Libraries Unlimited, 2012, pp.6-8.

3) 엄밀하게 말하면 미국의 로맨스 이론가들이 말한 ‘romance’는 영국의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novel)과 미국의 소설을 구별 짓기 위한 것이므로 ‘romantic novel’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4) 양석원, 『로맨스와 미국소설 비평, 역사와 상상력의 변증법』, 『근대 영미소설』 제5집 제1호, 1988, 95-96쪽.

적 관심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했다. 즉, 탈역사적인 정전을 중심으로 텍스트 분석에 함몰됐던 신비평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한 미국의 로맨스 이론은 문학적 정전과 대중문화의 자율성에 대한 학술적 논쟁을 촉발시켰으며, 문학이 역사와 상상력의 변증법적 산물이라는 점과 문화상품의 수용자가 지닌 자율적 주체성과 새로운 상상력의 가치에 주목했다. 아울러 로맨스를 비롯한 대중문화와 하위문화 연구에 유용한 실증적인 연구방법론을 구축했다는 의의를 지닌다.⁵⁾

그러나 이처럼 오랜 시간동안 우회로를 거쳐 로맨스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문학’으로 귀환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70,80년대 할리퀸 시리즈와 실루엣시리즈 등을 비롯한 현대로맨스(contemporary romance)의 폭발적인 인기에서 비롯됐다. 이를 계기로 출발한 1980년대 현대로맨스의 연구 방법론은 크게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과 사회적 결정체로서의 문맥(context)에 주목하는 문화연구와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텍스트에 재현된 가부장제와 여성적 삶의 함수관계를 분석하고 재해석하는 문학연구로 나뉜다. 이 두 가지 연구방법론의 이론적 맥락은 상호 대립적이다. 니나 베임(Nina Baym)과 프레드릭 크루스(Frederick Crews) 등에 따르면, 전자의 방법론은 미국 여성작가와 소수 인종의 작품들을 리얼리즘소설로 규정하고 백인남성 작가 위주의 로맨스와 구별 짓는 등 백인남성 우월주의적 관점이라는 한계에 갇혀 있다. 때문에 가부장적 문화에 침묵당한 여성들의 애환이 담긴 로맨스의 가치를 온전하게 조명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적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⁶⁾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

5) 송승철, 『이론과 문화연구: 양자의 갈등과 한국영문학의 좌표』, 『비평과 이론』 제11권 2호, 2006, 29-48쪽; 유영중, 『미국문학의 로맨스소설 이론』, 『안과 밖』 14권, 2003, 2012-227쪽; 양석원, 『로맨스와 미국소설 비평, 역사와 상상력의 변증법』, 『근대 영미소설』 제5집 제1호, 1988, 95-122쪽.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에 힘입어 사회, 역사, 계급, 인종, 젠더 등의 문제가 문학연구의 전면에 부상함에 따라, 두 가지 연구방법론이 서로 교차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제니스 래드웨이의 『로맨스 읽기: 여성, 가부장제와 대중문화』⁶⁾은 이 두 가지 방법론이 교차하는 시기인 1980년대 초반에 발간되어, 출판과 동시에 양 진영으로부터 집중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 책은 문화연구에서 구축한 민족지학(ethnography)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여성 독자들로 구성된 로맨스 독서공동체의 실체를 입증하고 로맨스 독서 행위의 의미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독자반응비평을 공고화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낸시 초로도로우의 정신분석 페미니즘을 동원하여 로맨스의 서사문법과 텍스트의 특질과 가부장제의 함수관계를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저서는 문학비평은 물론 질적 평가 방법론을 중시하는 사회학이나 인류학, 문헌정보학 등을 비롯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필독서로 손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로맨스 읽기』가 지닌 가치와 의의는 대립적인 두 가지 방법론을 조합하여 로맨스와 여성, 그리고 가부장제의 함수관계를 실증적으로 밝혀냄으로써 그간 로맨스를 영국의 소설과 차별화된 미국의 소설로 왜곡해왔던 미국의 로맨스 이론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로맨스가 여성(작가)에 의한 여성(독자)을 위한 문학으로 귀환하는데 공헌했다는 점에 있다. 물론 이런 학문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 진영의 연구방법론이 워낙 대립적인 성향이 강한 탓에 이를 결합한 상호보완적인 연구방법론

6) 유영중, 『미국문학의 로맨스 소설 이론』, 『안과 밖』 제14권, 2003, 217-220쪽에서 재인용.

7) Janice A. Radway의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는 초판본이 1984년에 출판됐고, 영국 방문 기념을 앞둔 시점인 1991년에 개정판이 출판됐다. 본 논문에서는 개정판을 참고했으며 인용 페이지는 괄호 안에 표기할 것이다. 이하 제목을 줄여서 『로맨스 읽기』로 표기할 것이다.

이 지닌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 역시 묵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이에 따라 2장에서는 먼저 민족지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로맨스 독서 공동체를 중심으로 가부장적 체제와 로맨스 읽기 의미와의 상관성을 도출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그 해석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어 3장에서는 독자들이 선호하는 로맨스를 바탕으로 로맨스의 서사문법과 특질을 추출한 텍스트 연구 결과를 낸시 초도로우의 대상관계이론에 적용하여 로맨틱 판타지와 가부장적 결혼의 수용양상과의 함수관계를 밝혀내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4장에서는 제니스 래드웨이의 로맨스 연구방법론에 대한 논쟁을 중심으로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로맨스 연구의 의미와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2. 로맨스 읽기, 가부장적 일상으로부터의 도피와 감정적 구원

제니스 래드웨이의 『로맨스 읽기』가 출간됐던 1980년대 초반에는 현대로맨스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다. 특히 1979년 한 해 동안 1억6천8백만 권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 팔렸던 이른바 ‘할리퀸 신드롬’을 계기로 로맨스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때 로맨스 연구는 문화연구와 페미니즘적 문학연구로 크게 나뉘었는데, 전자의 대표 주자로 제니스 래드웨이의 『로맨스 읽기』를 후자의 대표 주자로 타니아 모듈스키의 『보복을 품은 사랑』⁸⁾과 로잘린 카워드⁹⁾의 『여성의 욕망』⁹⁾을 꼽을 수 있다.

8) Tania Modleski, *Loving with a Vengeance: Mass Produced Fantasies for Women*, New York: Routledge, 1982.

9) Rosalind Coward, *Female Desire: How they are sought, bought and packaged*, New York: Grove Press, 1984.

사회학자인 제니스 레드웨이는 민족지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현대 로맨스가 여성들에게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원인을 로맨스의 생산과 유통의 구조변화에서 찾았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 독서 대중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점과 로맨스가 여성들의 경험과 기대를 반영하는 여성을 위한 소설이라는 점을 간파한 로맨스 전문 출판사들이 제작과 배급 및 광고 등과 관련된 생산방식과 유통기술을 대대적으로 혁신한 결과, 현대로맨스의 인기가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여성들의 출입이 잦은 쇼핑센터 내에 서점을 개설하고, 판촉전이나 할인판매전과 같은 프로모션을 개최한다거나 우편배송제를 도입하는 등 세련된 판매기술의 혁신이 높은 로맨스 구매율로 이어지고, 구매율을 더욱더 끌어올리기 위해 여성들의 독서취향을 반영하는 순환구조가 로맨스 생산의 구조변동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저자는 로맨스를 ‘작가, 문학 에이전트, 출판사, 편집자, 책의 제작과 유통과 판매 등 수많은 요인이 결합된 사회과정의 최종산물’로 규정했다.(pp.19-45.)

제니스 레드웨이는 이런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미국 중서부 캔자스주에 위치한 소도시 스미스톤(Smithton)에 존재하는 일명 ‘스미스톤 독서공동체’를 선정했다.¹⁰⁾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도시 주변에 위치한 베드타운의 특성을 지닌 소도시에 거주하는 주부들로, 시내 중심가의 쇼핑센터에 자리한 서점의 단골 고객들이다. 이들은 대체로 고등교육 이상의 교육수준과 중산층 정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며 60% 이상이 25~44세라는 점에서 할리퀸 독자층과도 유사성을 공유한다. 그러나 이 공동체가 지닌 차별성은 로맨스 독자에서 작가로 변신한 도로시 에반스(Dorothy Evans)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도로시

10) ‘스미스톤’이란 도시는 저자가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독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붙인 가칭이다.

의 로맨스 독서일기)라는 뉴스레터를 중심으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구성원들의 독서습관이 균질적이며 로맨스 취향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 있다. ‘스미스턴 독서공동체’가 로맨스의 인기 순위를 선발한다거나 출판사에 여성 독자들의 취향에 맞는 로맨스 출판을 요구하는 등 비교적 동질적인 목소리를 표출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저자는 이를 스텐리 피시의 독자반응비평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상징적인 독서공동체로 규정했다.¹¹⁾ 이처럼 스미스턴 독서공동체를 로맨스 연구의 표본 집단으로 상정한 저자는 그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42명), 인터뷰와 집단토의(16명)¹²⁾ 등의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여성 독자들의 로맨스 독서전략과 텍스트 수용의 해석적 코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가부장제와 로맨스 독서의 상관성을 규명했다.

먼저, 저자는 42명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로맨스 독서의 시간과 그 의미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1/3 이상(15명)이 매주 5~9권의 로맨스를 읽으며 평균적으로 주당 11~25시간을 로맨스 독서에 할애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1/4에 해당하는 여성독자들은 가사나 가족들에 의해 방해받지 않을 경우 ‘한 자리에서 끝까지 읽고 싶다’고 답했고, 4명은 주당 15~25권의 로맨스를 읽으며 심지어 37명(88%)은 ‘매일 독서한다’고 답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여성들이 로맨스 구매와 독서에 상당한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할애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흥미롭게도 여성독자

11) 제니스 래드웨이는 스텐리 피시의 독자반응비평(수용이론)은 학회 내 소수 학자로 구성된 해석공동체를 기반으로 수립한 이론이므로, 대중문학 독자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질적 연구의 조건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Janice A. Radway,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9, pp.7-8)

12) 저자에 따르면 스미스턴 독서공동체의 구성원들 중 설문조사에 응한 독자들은 42명이고 그 중에서 심층면접과 집단토의를 벌인 독자는 16명이라 했으니, 연구대상으로 삼은 전체 인원은 42명임을 알 수 있다.

들은 이처럼 많은 시간과 비용을 로맨스 독서에 할애하는 이유에 대해 초기의 설문조사에서는 단순한 휴식(45%), 자신을 위한 시간(8%), 다른 곳으로의 도피(14%), 일상으로부터의 탈출(2%)이라고 답하며 스스로 로맨스 독서의 의미를 '탈출'과 '교육'에 있다고 진단했다.(pp.57-62.)

그러나 제니스 래드웨이는 이들이 '일종의 진정제나 피로회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것'처럼 선호하는 로맨스를 반복적으로 읽는 습관을 간파하고, 집단토론과 개별면담을 통해 로맨스 독서가 여성들에게 갖는 심층적 의미를 밝혀냈다. 즉, 이처럼 여성들이 로맨스 독서에 열광적인 이유는 부담스러운 가부장적 체제로부터 도피와 탈출의 해방감을 추구하는 동시에 일시적이거나 행복감과 정서적 구원을 얻고자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가정주부들인 여성독자들에게 로맨스 독서는 가사와 가족을 돌봐야 하는 일상적인 의무와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자기 방어적인 울타리를 치고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시공간에 몰입할 수 있는 일종의 도피처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성들에게 로맨스 독서는 가부장적 사회나 가부장적 결혼에서 파생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현실을 부정하는 합법적인 방법이자 이로부터 도피와 탈출을 시도하려는 심리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독립선언이며, 일상적인 슬픔과 우울감에서 벗어나 영혼을 고취시키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pp.90-101.)

이런 점에 입각해 보면, 여성독자들이 선호하는 로맨스는 가부장적 체제로부터 도피와 탈출을 감행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치유적인 대리만족감을 안겨주는 유형이다. 여성독자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로맨스는 단순히 사랑과 구애의 러브스토리가 아니라 남녀 주인공이 점차적으로 불신과 의혹을 극복하고 마침내 사랑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그린다. 특히 여성독자들은 남녀 주인공의 육체적인 접촉에

대한 상세한 묘사를 싫어하며, 둘 사이의 정서적 친밀감에 호감을 갖는다고 답했다. 저자는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이상적인 로맨스 유형과 기피하는 로맨스 유형으로 분류했다. 전자는 서로에 대한 호감에서 출발한 남녀 주인공들이 오해로 인한 시련의 과정을 거쳐 마침내 사랑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다룬다. 그리하여 이상적인 로맨스는 가부장제의 모순적 현실에서 상처받은 여성독자들에게 현실로부터 도피와 탈출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과 대리만족감을 안겨준다. 반면, 기피하는 로맨스는 강간과 슬픈 결말, 노골적인 성관계와 육체적 고문 등 포르노적인 요소가 강해 가부장제의 억압성과 폭력성을 환기시켜준다.(pp.64-83.)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제니스 레드웨이는 민속지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스미스턴 독서공동체의 여성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성들의 로맨스 독서 행위의 의미를 출판과 유통과 관련된 문화적 환경과 사회구조에서 밝혀내려는 데서 출발했다. 그러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성 독자들의 시선을 통해 로맨스 독서행위의 의미를 도출함으로써 독서행위에 대한 심층적이고 폭넓은 탐구를 통해 평범한 여성들의 독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밝혀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¹³⁾

그러나 문화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저자가 여성독자들의 로맨스 독서행위와 로맨스 텍스트와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문학적 효능에 과도하게 주목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자는 로맨스 독서행위의 의미를 ‘일상적인 의무와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자기방어적인 울타리’, ‘울지 않기 위해 자신에만 몰입하는 도피처’, ‘가부장적 결혼에서 파생되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13) Charlotte Brunsdon, "Pedagogies of the feminine: feminist teaching and women's genres", *Screen*, 32-4, 1991, p.72.

찬 현실부정', '가부장제로부터 도피와 탈출을 시도하는 일시적인 독립 선언' 등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이런 표현에는 가부장제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나 전복성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여성들의 일탈적 쾌락이나 즐거움 등과 같이 소극적 차원의 저항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에로틱한 기대감', '대리만족', '정서적 위안' 등과 같이 심리적 위안에 초점을 두어 로맨스를 가부장적 현실에서 충족되지 못한 여성들의 심리적 욕구를 보상해주는 '보상문학(compensatory fiction)'으로 단정했다.(pp.108-118.)

그러나 앤소니 기든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한 여성들의 욕망을 보상해주는 로맨스는 적어도 가부장적 결혼을 이상화하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의 문학이자 여성들이 꿈꾸는 환상의 세계를 그리는 희망의 문학이라 할 수 있다.¹⁴⁾ 이런 점에서 저자는 로맨스의 문학적 효능에 주목한 나머지 여성들에게 로맨스의 독서행위 자체가 지니는 즐거움이나 쾌락을 외면했다는 비판¹⁵⁾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여성들의 삶에 반영된 갖가지 문제와 불안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로맨스를 가부장제에 대한 항의와 저항이 함의된 '보복을 품은 사랑'의 문학이라 진단했던 타니아 모듈스키와도 대조를 이룬다.¹⁶⁾ 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상세하게 논의할 것이다.

14) 앤소니 기든스,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친밀성의 구조변동』, 배은경·황정미 옮김, 새물결, 1999, 90-93쪽.

15) 대표적으로 이안 앙(Ien Ang, *Watching Dallas: Soap Opera and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London: Methuen, 1985, pp.585-586)을 들 수 있다.

16) Tania Modleski, *Loving with a Vengeance: Mass Produced Fantasies for Women*, New York: Routledge, 1982, pp.14-47.

3. 로맨스 서사, 보상적 교환성 충족과 여성 유토피아적 판타지

앞장에서 살펴본 대로, 제니스 래드웨이는 스미스턴 공동체의 여성독자들이 답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로맨스 유형이 존재하며 마치 진정제나 피로회복제를 습관적으로 복용하듯이 이런 유형의 로맨스를 반복적으로 읽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을 계기로 저자는 로맨스 독서전략의 의미 분석과 로맨스 텍스트 분석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특히 저자는 로맨스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공동체의 리더인 에반스 도로시의 추천을 받아 가장 선호하는 20권을 직접 읽고 로맨스 장르의 문법을 밝혀냈다. 즉, 로맨스의 공통적인 서사 구조와 인물의 전형성을 추출한 다음 이를 다시 로맨스의 독서전략의 의미와 연관시켜 해석하는 방식을 취했다.

단계	로맨스 서사 단위
만남	1. 여주인공(이하 여주)의 사회적 정체성이 파괴된다.
	2. 여주는 (귀족) 남성에게 반감을 품는다.
시련	3. 남주인공(이하 남주)은 여주인공에게 애매하게 반응한다.
	4. 여주는 남주의 행동을 순전히 성적 관심으로 해석한다.
	5. 여주는 남주의 행동에 분노나 냉담으로 응한다.
	6. 남주는 여주를 징벌함으로써 보복한다.
회복	7. 여주와 남주는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8. 남주는 여주에게 상냥하게 대한다.
	9. 여주는 남주의 상냥한 행동에 따뜻하게 응한다.
해피 엔딩	10. 여주는 남주의 모호한 행동을 이전 상처의 산물로 재해석한다.
	11. 남주는 극도의 부드러움으로 여주를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증명하며 프로포즈를 한다.
	12. 여주는 감정적, 성적으로 반응한다.
	13. 여주의 정체성이 회복된다.

여성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20권의 로맨스에서 추출한 서사구조를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¹⁷⁾ 로맨스 플롯은 크게 '만남 → 시련(장애) → 회복(점진적 발전) → 해피엔딩'의 4단계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13개의 서사단위(sequence)로 세분화 된다. 초반에 남녀 주인공의 만남은 오해와 실수로 인해 일련의 시련과정을 거치지만, 점차 사랑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행복한 결합(결혼)으로 이어진다. 특히 가장 중요한 점은 언제나 남주인공이 부드러운 포옹과 애무로 여주인공을 소중하게 감싸 안으며 사랑의 언어로 칭송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 엔딩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서사 단위의 1순위는 '해피엔딩'(12~13)이며, 그 다음 '남녀 주인공이 점진적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8~10)과 '서로의 행동에 대한 오해를 풀고 마침내 도달한 사랑의 고백'(11)의 순이다.(pp.128-134.)

독자들은 이처럼 '남녀 주인공의 만남 → 시련(장애) → 회복(점진적 발전) → 해피엔딩'이라는 스테레오타입의 로맨스를 '해피엔딩의 동화'로 여긴다. 저자 역시 남녀 주인공 사이에 사랑의 결합이라는 '상투적인 해피엔딩'을 고수한다는 점에서 로맨스와 동화가 동질적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전형적인 인물과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적 세계를 그리는 반면, 로맨스에서는 각 스토리마다 시·공간적 특수성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여성들이 현실에서 경험할 법한 가상적인 사건의 인과관계를 그려냄으로써 개연성과 핏진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소설의 주인공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특수한 환경에 거주하며 각 인물의 성격이나 의식도 나름의 개성적인 스타일을 지니는 것처럼, 로맨스의 인물 역시 저마다 개성과 독특한 정체성을 지닐 뿐 아니라 그들이 처한

17) 이 표는 저자가 로맨스의 서사구조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한 내용을 필자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다.

구체적인 상황과 환경도 각자 다르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이유를 들어 로맨스의 세계는 결코 현실과 괴리된 동화의 신화적 판타지가 아니라 여성들이 살고 있는 현실세계와 밀착되어 있으면서도 여성들의 욕망과 환상이 투사된 ‘여성 유토피아적 판타지’로 규정했다.(pp.204-208.)

한편, 20권의 로맨스에서 추출한 주인공들은 아름답지만 반항적이며 성적으로 미성숙한 여성과 수려한 외모에 남성적인 매력을 겸비하고 공감능력과 부드러움을 소유한 남자라는 전형성을 지닌다. 여성독자들은 로맨스의 질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조건으로 여주인공의 성격과 여주인공을 대하는 남주인공의 태도를 손꼽았다. 또한 가장 선호하는 여주인공의 자질로 똑똑함과 지능(33명), 유머감각(31명), 독립성(20명), 능숙한 말솜씨(9명)를 들었다.¹⁸⁾ 반면, 남주인공이 갖춰야 할 필수 자질은 외모보다는 ‘상냥함’과 ‘부드러움’ 등의 내면적 요소이며, 심지어 여러 여자와 성경험이 많은 바람둥이라 할지라도 일편단심 여주인공을 사랑한다는 진정성만 보증된다면 서슴없이 용납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여성독자들은 로맨스의 여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두 주인공이 사랑을 키워나가는 일련의 과정에 마치 자신이 함께 참여하는 것과 같은 정서적 충족감을 즐긴다. 이런 점에서 지적이고 독립적이며 유머감각을 갖춘 여성이 거칠고 투박한 남자를 부드럽고 상냥한 남자로 변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발휘되는 여주인공의 재치와 능력을 가장 높이 평가했다. 또한 여성독자들은 거친 남자를 길들이는 여주인공의 용기와 지혜를 ‘교과서’ 삼아 자신의 남편(혹은 애인)을 대하는 방법으로 활용한다고 고백하며 로맨스의 교육적 효과를 인정했다.(pp.121-132.)

이런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저자는 로맨스 독서를 고달프고 힘든 가부장제의 일상으로부터 탈출하여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유

18) 이는 설문조사의 문항에 중복 체크한 결과이다.

토피아적 판타지의 세계로 진입하는 은유적인 전이(轉移)로 판단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로맨스의 서두, 특히 첫 단락에 여성독자들을 낭만적 환상(romantic fantasy)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흡입력을 높이기 위한 미메시스 전략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배경(setting)이나 패션 스타일과 색감, 디자인과 같은 물질적인 세부사항을 세밀하게 배치하는 등 여성들의 감각을 압도하는 기술(description)을 구사한다. 이처럼 강력한 미메시스 효과는 앞으로 펼쳐질 로맨스의 세계가 여성 독자들이 살아가는 현실과 그리 동떨어지지 않은 인접성과 핏진성을 보증하며, 독자들을 여성들의 욕망과 동경을 충족시켜주는 낭만적인 환상과 여성 유토피아적 판타지의 세계로 유인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pp.190-193.)

나아가, 제니스 래드웨이는 현대가정의 구조적 특성과 여성의 정서적 삶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낸시 초도로우(Nancy Chodorow)의 대상관계이론을 동원하여 로맨스가 그리는 낭만적 환상을 일종의 퇴행형식(form of regression)으로 간주했다. 낸시 초도로우에 따르면, 여성에게 어머니역할(mothering)이라는 양육과 돌봄의 의무를 부과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는 모성과 관련된 유아기의 경험이 남성과 여성의 심리기제에 각각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와 어린 딸은 여성이라는 상호유사성으로 인해 돈독한 친밀성을 유지함으로써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차단하기 때문에 전(前)오이디푸스 단계에 장기간 머무르게 된다. 그리하여 성인이 된 딸은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기 어려워 어머니에 대해 의존과 정체성의 혼란 사이를 오가는 양가적 감정을 갖게 되며, 성인이 된 여성들은 대리양육으로서의 모성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들의 경우 유아기에는 딸과 동일하게 모성으로 양육되지만, 성별 차이를 인식하는 오이디푸스 단계에

이르면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여성성과 관련된 부드러움이나 섬세한 감정과 관련된 능력을 억압하면서 일찍부터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분리된다. 이처럼 가부장적 가족구조에서 비롯된 여성과 남성의 성적 비대칭성으로 인해 남성들은 여성의 감정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하게 되고, 여성들은 잃어버린 관계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성적 감정충족에 집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모성적 감정충족이라는 퇴행의 경험은 레즈비어니즘이나 남성과의 관계, 혹은 다른 수단에 의한 충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pp.135-139.)

제니스 래드웨이는 낸시 초도로우의 이론을 인용하여 로맨스를 모성적 감정충족이라는 퇴행경험의 세 번째 유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여성독자들이 해피엔딩의 동화적인 결합(결혼)을 선호하는 현상 역시 가사와 육아 등 고달픈 가부장적 결혼에서 탈출하여 모성적 감정충족을 얻기 위한 퇴행적 보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항상 여주인공의 감정적 고립과 상실감에서 출발하는 로맨스의 도입부는 여성들이 어린 시절 친숙하고 편안한 관계를 맺었던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불안한 시점과 일치한다. 또한 독서전략의 차원에서 로맨스의 도입부는 가부장적 모순으로부터 벗어나 정서적 위안을 받기 위해 로맨스 소설을 막 펼치기 시작한 여성독자들의 고립감과 공허감을 여주인공의 감정적 고립과 상실감에 일치하도록 배치한다는 것이다.(pp.137-138.)

정리하면, 여성들에게 로맨스는 돌봄의 보상이 충족되지 않는 가부장적 현실로부터 벗어나 감정적 구원을 제공받는 교환적 보상의 환상물이다. 즉, 현실세계에서는 여성들이 가족을 보살피고 아이를 양육하는 의무에 시달리지만 로맨틱 판타지의 세계에서는 반대로 남성이 여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여성독자들은 정서적인 위안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로맨스는 결코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특별하거나 완전무결한 왕자님을 찾아나서는 동화적 판타지가 아니라 여성들이 꿈꾸는 세계, 즉 남성들이 여성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교환적 보상을 충족시켜주는 유토피아적인 판타지이다. 이런 유토피아적 판타지의 세계에서는 언제나 강하고 거친 남성이 여리고 상처 입은 여주인공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의 결합(결혼)을 이루며, 이 발전적 서사를 통해 현실에서 상처 입은 여성들을 위로해주는 낭만적 환상이 성립된다. 이런 맥락에서 교환적 보상을 충족시켜주는 이상적인 로맨스에서는 ‘아버지와 같은 보호’,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 ‘열정적인 어른의 성숙한 사랑’이라는 완벽한 삼각구도를 구성함으로써 어머니와 유아 사이의 행복한 공생적 결합의 재설립을 지향한다. 그러므로 로맨스 독서는 아내와 어머니 역할의 버거운 임무로부터 벗어나 낭만적 환상의 세계로 탈출하여 여주인공과 동일시를 통한 대리만족을 만끽하는 감정적인 위로와 보상을 안겨준다. 비록 여주인공과 동일시를 통한 대리만족에 불과할지라도 로맨스는 여성들에게 다른 사람(남자)으로부터 사랑을 받을만한 사람이라는 정서적 충족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pp.137-155.)

그런데 이런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위로와 보상은 로맨스 읽는 동안 짧은 시간에만 이루어질 뿐 로맨스를 덮는 순간 다시 고달픈 가부장적 현실로 돌아가는 순환으로 이어진다. 여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통한 정서적 재구성은 일시적이어서 가부장적 현실로 회귀하자마자 피로회복제나 진정제를 습관적으로 찾듯이 또 다른 로맨스에 탐닉하게 되고 만다. 그리하여 가부장적 현실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저항으로서의 로맨스 독서 행위는 환상적인 로맨스의 세계가 추구하는 가부장적 결혼을 수용하는 수동성으로 귀착된다. 결국 여성들의 로맨스 읽기는 가부장제에 대한 소극적 저항과 수동적인 수용의 무한반복이라는 모순에 봉

착하고 만다. 이런 논리적 모순은 크게 다음 세 가지 문제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첫째, 문화연구의 대상인 행위로서의 텍스트 읽기(text reading as an event)와 문학연구의 대상인 구조로서의 텍스트(text as structure)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점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니나 베임 등이 지적한 바대로 민족지학적 문화연구 방법론은 백인 남성작가 중심적인 정전화를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여성들의 작품을 소거해왔다. 그러나 저자는 기존의 문화연구자들과 달리 실재 존재하는 여성독자들의 로맨스 독서 경험을 중시했을 뿐 아니라 여성작가의 작품을 분석하는데 있어 연구자 자신의 관점을 배제하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자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저자가 연구 대상에 대해 중립적인 거리를 취하지 못한 채, 여성들의 로맨스 독서의 실천적 의미와 로맨스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성독자들의 시각과 동일시함에 따라 자기분열을 자초한 것이다.

둘째, 저자는 여성독자들이 로맨스의 주인공이 남주인공을 다루는 방법을 교과서 삼아 가부장적 결혼생활에서 남편을 대하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교육적 효과에 주목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맨스 독서행위를 단순히 가부장적 결혼을 수용하기 위한 정서적 충족감으로 축소시켰던 점에서 모더니즘 문화연구자들의 관점과 분리되지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지게 됐다. 모더니즘 문화연구자들은 대중문화를 대량생산의 테크놀로지에 의해 생산되는 상업문화로 규정하며, 수용자들로 하여금 일상의 삶에 탐닉하게 만들고 오락적이고 조야한 취향을 조장함으로써 사회변화를 위한 개혁을 무력화하는 '마취작용'을 지닌 저급문화라고 비판했다. 물론 저자는 이들과 달리 로맨스를 저급한 대중문화로 폄하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독자들의 원망(原望)이나 심리적 위로를 충족시켜주는 수용

자 중심의 대중문화로 간주한다거나 현대로맨스가 급부상한 원인을 로맨스의 생산과 유통구조의 변화가 가져다준 사회과정의 최종산물로 규정할 점 등은 대중문화의 저항성이나 취향의 생산성을 평가절하 하는 모더니즘 문화연구자들의 관점과 일치한다.¹⁹⁾

셋째, 이런 모순은 낸시 초도로우의 대상관계이론을 인용하여 로맨스와 여성, 가부장제의 함수관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더욱 증폭됐다. 여성들이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재생산하려는 무의식적 욕구를 분석한 낸시 초도로우의 이론은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부과한 퇴행적 모성이 남성과 여성의 성별분업을 지속화하는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인 어머니-아이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어 아버지-아이의 관계를 외면했으며, 어머니의 감정적 좌절이나 결핍에 과도하게 주목한 결과 주체성과 성적 정체성에 미치는 여성의 욕망을 묵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²⁰⁾ 이런 연장선상에서 로맨스를 모성적 감정 충족의 퇴행 형식으로 해석한 저자의 관점도 문제적이다.

저자 역시 이런 한계를 의식하여 비평가로서 자신은 여성들의 새로운 변화를 지원한다는 유보적인 결론을 내린다. 초판본의 결론 부분에서 '여성독자들이 이상적인 로맨스를 읽는 행위는 유토피아적 판타지에 대한 만족이라기보다 현실에 대한 불만족과 현실의 남성들에 대한 상상 속의 분노를 로맨스를 통해 검열하는 카타르시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들의 소극적인 항의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와 동시에 로맨스는 가부장제가 만든 여성의 사회적 배치를 정당화할 뿐 아니라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 통제라는 제

19) 허버트 J. 갠스,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강현두 역, 나남출판, 1998, 37-97쪽 참조.

20) 로즈마리 퉁, 『페미니즘 사상』, 이소영 옮김, 한신문화사, 2000, 245-330쪽.

도화된 기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회피하며, 여성을 가부장제와 화해시킴으로써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온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강조했다.(pp.214-222.) 또한, 문화연구 방법론이 우세한 영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개정판(1991)을 발간하고 맨 마지막에 “Reading Reading the Romance”를 추가하여 이런 비판에 맞서 자기 방어적 변론을 펼쳤다. 이에 대해 4장에서 상세하게 고찰할 것이다.

4.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로맨스 연구의 의미와 과제

로맨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80년대 초반에 비로소 시작됐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1970~80년대 현대로맨스의 급격한 인기에서 촉발됐지만, 무엇보다 68혁명 이후 포스트모더니즘이 대두됨에 따라 대중문화와 대중문학에 대한 관심과 페미니즘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시대 변화가 주요한 원인이었다. 제니스 래드웨이의 『로맨스 읽기』는 시대 변화의 선두에 선 로맨스 연구서이다. 이런 까닭에 저자는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벗어나 대중들의 독서경험을 실증하는 자신의 연구방법론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지면(1장과 2장)을 할애했다. 민속지학적 방법론을 동원하여 여성독자 공동체를 대상으로 독자들의 삶의 패턴과 독서방식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로맨스 독서행위의 의미를 밝히고, 나아가 ‘가부장적 결혼’이라는 개념에 의지하여 로맨스 텍스트를 분석한 다음 이를 토대로 로맨스와 여성과 가부장제의 함수관계를 포괄적으로 정리했다.

이 일련의 연구과정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문화연구라는 커다란 틀이 로맨스 텍스트 분석의 문학연구를 감싸고 있는 액자구조를 이룬다. 『로

맨스 읽기』에 대한 엇갈린 평가는 바로 이 액자구조에서 비롯된다. 물론 서로 이질적인 문화연구와 문학연구를 조합하여 로맨스독서의 의미와 로맨스의 서사문법을 분석했다는 자체만으로도 당시 비평가들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문화연구와 문학연구 중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느냐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나뉘진다.

우선 문화연구에 초점을 두면, 여성 대중독자들의 자율성과 경험의 고유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즉, 제니스 래드웨이의 연구는 추상적인 민속지학적 이론에서 벗어나 연구 대상과 직접 접촉하여 텍스트의 생산과정을 분석하고 생산된 텍스트가 상업적 유통과정을 거쳐 각기 다른 여성독자들에게 수용되는 전 과정을 조망했으며, 이 과정에서 텍스트의 독자와 분리된 사회에 실재하는 독자의 생산력을 인정하는 등 문화연구의 범주를 넓혔다는 것이다.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와 독서행위의 생산적 의미를 구분함으로써 최초로 여성독자들의 ‘체험의 진정성’을 바탕으로 로맨스 독서가 지닌 저항성을 밝혀낼 수 있었다.²¹⁾

그러나 문학연구에 초점 맞춰보면, 개인 차원의 로맨스 독서를 사회적 향의의 의미로 해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액자 내부에 해당하는 문학연구에서 로맨스 텍스트를 가부장제를 수용하는 여성 판타지로 규정하는 논리적 모순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애초에 대중문화 수용자들의 창조성과 저항 가능성을 인정하는 지점에서 로맨스 연구를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제라는 구조적 한계에 부딪치자 로맨스를 ‘가부장제의 모순을 상상적으로 해결하는 문학’으로 규정함으로써 문학 텍스트와 독

21) 송승철, 『이론과 문화연구: 양자의 갈등과 한국 영문학의 좌표』, 『비평과 이론』 제11권 2호, 2006, 39-41쪽; Charlotte Brunsdon, “Pedagogies of the feminine: feminist teaching and women’s genres”, *Screen*, 32-4, 1991, p.372.

서 경험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탈구조주의로 회피했다는 것이다. 물론 문학연구를 액자처럼 감싸고 있는 문화연구에 초점을 두면, 고급 문화를 옹호하는 모더니즘에 반기를 들어 여성독자들의 자율성과 대중 문화의 가치를 인정한 저자의 관점은 분명 진일보적인 측면이 있지만, 탈구조주의적 독서행위의 실천적 의미와 구조주의적 텍스트 분석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지 못해 스스로 문화연구의 이론과 연구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모순을 자초했다는 것이다.²²⁾

하지만, 이런 모순은 이미 3장에서 지적했던 대로 문화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여성 연구자가 여성 장르인 로맨스 연구에 착수하면서 발생한 자기분열에 해당한다. 문화연구자의 입장에서는 연구대상과 중립적인 거리를 취해야 하지만, 여성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저자가 여성독자들의 독서행위의 의미를 규명하고 로맨스 텍스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입장에 동일시했던 것이다. 저자 역시 이런 분열을 의식하여 타니아 모들스키를 비롯한 당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과 달리 문화연구자로서 자신은 여성들의 새로운 변화를 지원한다는 정도의 유보적인 결론을 내렸다.(pp.214-222.)

그러나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제니스 래드웨이의 분열적이고 유보적인 태도를 집중 공격하며, 이런 문제점은 문화연구라는 틀을 전제로 로맨스 텍스트를 분석한 연구방법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로잘린 카워드도 가부장적 체제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을 반영한 로맨스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문화정치로서의 문학연구’가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반박했다. 『로맨스 읽기』는 이런

22) 송승철, 『대중문화의 불온성 논쟁: 제니스 래드웨이의 문화연구의 고찰』, 『영미문학 연구』 제1권, 2001, 8-10쪽; 송승철, 『이론과 문화연구: 양자의 갈등과 한국영문학의 좌표』, 『비평과 이론』 제11권 2호, 2006, 39-41쪽.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에, 로맨스와 대중소설, TV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가 ‘여성들을 위해 대량생산된 환상’을 제공하면서도 여성들을 ‘쾌락과 가책의 끝없는 순환’으로 몰고 가는 현상이 바로 가부장제로부터 야기된 여성적 삶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직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²³⁾

특히 타니아 모들스키는 문화연구와 문학연구를 조합한 방법론 자체를 문제 삼으며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비판했다.

첫째, 문화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지닌 제니스 래드웨이는 스스로 공평무사하고 중립적인 ‘과학적 연구자’의 자세로 여성독자들의 목소리를 공평하고 겸손하게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연구방법이 우월하다는 태도로 일관하여 로맨스 독자들의 독서행위가 자기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정치·문화적 희생자로서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 결과, 『로맨스 읽기』에서 로맨스 독서행위의 실천적 의미와 로맨스 텍스트 해석 사이의 불일치가 초래됐으며, 그로 인해 가부장제에 대한 여성들의 저항을 외면하고 현실개혁의 의지를 간과한 점은 로맨스 연구에 있어 가장 치명적인 한계라고 비판했다.

둘째, 로맨스 독서를 실천하는 해석적 관습은 결코 여성독자공동체나 하위문화에서 형성되는 특수한 경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즉, 가부장 사회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판타지 라이프, 유행가와 동화, 소설과 영화 등을 통해 수많은 로맨스 관습의 문화유산을 습득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스미스턴 독서공동체의 여성독자들이 어렸을 때부터 대중문화 등을 통해 로맨스의 문화유산에 상시적으로 접했을 뿐 아니라 페미니스트로서의 성향을 지닌 에반스 도로시가 발송한

23) Rosalind Coward, *Female Desire: How they are sought, bought, and packaged*, New York: Grove Press, 1984, pp.10-14.

뉴스레터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독자공동체를 마치 이런 문화유산이라고는 전혀 접해본 적도 없는 남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보라보라 섬의 원주민인양 취급하는 저자의 태도야말로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셋째, 로맨스 독서를 하위문화로 접근하는 저자의 관점은 점점 권력화되는 가부장적 이념에 여성들이 효과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가치체계의 개발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비판했다. 타니아 모듈스키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평가의 주관성과 독자들의 주관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민족지학적 방법론을 지양하고, 여성들의 개인적 경험을 집단적으로 탐구하고 공적인 것으로 만드는 ‘여성으로서의 읽기’를 제안했다.²⁴⁾

흥미롭게도 제니스 래드웨이는 모더니즘 문화연구가 우세한 영국 방문을 앞둔 시점에 개정판을 발간하고 맨 끝에 “Reading Reading the Romance”를 추가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론했다. 특히 페미니즘이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 안에 내재된 힘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여성으로서의 읽기’는 ‘페미니스트 비평가로서의 읽기’일 뿐이라고 일축하며,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로맨스 독서방식과 여성독자들의 로맨스 독서방식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로맨스는 더 이상 판타지나 백일몽이 아닌 영민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둔 문학’이라는 관점을 다시 한 번 공언하며, ‘장르이론을 지향한 연구 결과 로맨스는 보다 나은 세계를 원하는 여성들의 유토피아적 저항을 반영한 여성과 가부장제의 함수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맞서 자기 연구방법론의 정당성을 재천명했다.(pp.301-305.)

지금까지 살펴본 로맨스 연구를 둘러싼 제니스 래드웨이와 페미니스

24) 타니아 모듈스키, 『여성 없는 페미니즘』, 노영숙 옮김, 여이연, 2008, 62-74쪽.

트 비평가들 사이의 논쟁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이 두 진영 모두 로맨스는 여성의 삶과 가부장제의 함수관계를 그린 여성문학이므로 ‘여성의 관점’을 충실하게 반영한 로맨스 독서를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두 진영이 동일한 방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 그리고 ‘여성의 삶과 가부장제의 함수관계를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로맨스를 누구의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의 문제는 학문적 독자와 비학문적 독자의 구분이 전제된다. 이 둘 사이를 철저히 구분한 제니스 래드웨이는 비평가의 관점에서 로맨스 텍스트를 분석하는 학문적 독서를 배제하고, 로맨스를 향유하는 독자들의 비학문적 독서를 중시한다. 이런 점에서 비학문적 독서의 의미를 온전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여성독자들의 로맨스 독서행위에 대한 비평가들의 중립적인 거리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이에 비해,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가부장제의 모순적인 현실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경험적 유산은 비평가와 독자들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며, 학문적 독자와 비학문적 독자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로맨스 독서에서 필수적인 요건은 가부장제로부터 야기되는 여성적 삶의 모순에 초점을 맞춰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정치적 읽기’라고 주장했던 것이다.²⁵⁾

이처럼 로맨스를 누구의 관점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로맨스가 그리는 여성의 삶과 가부장제의 함수관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

25) Tania Modleski, *Loving with a Vengeance: Mass Produced Fantasies for Women*, New York: Routledge, 1982, p.34; Rosalind Coward, *Female Desire: How they are sought, bought and packaged*, New York: Grove Press, 1984, pp.10-14.

는 질문으로 확대된다. 이에 대해 제니스 레드웨이는 가부장적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일탈과 휴식을 얻기 위해 로맨스를 읽는 여성독자들의 미학적 경험에 초점 맞춰 로맨스를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에 대한 보상적 교환성을 충족시켜주는 유토피아적 판타지'로 정의했다. 반면, 페미니스트들은 로맨스를 가부장적 현실에서 여성들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실에 대한 강한 항의와 새로운 대안적 세계를 꿈꾸는 여성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보복을 품은 사랑의 판타지'라고 정의했다.²⁶⁾

오늘날에 이르러 이 두 입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로맨스 연구의 의미와 과제를 논한다는 것은 분명 시대착오적이다. 리타 펠스키의 충고대로 로맨스를 비롯한 여성문학 연구에 임하는 평지들은 학문적인 것과 개인적인 것, 비판적인 것과 고백적인 것들이 교직되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미학적인 경험에 담겨진 감정과 쾌락의 의미를 단일한 잣대에 맞춰 즉자적으로 반(反)자성적인 감상에 대한 변명 혹은 감정과잉으로 환치하거나 혹은 비판하는 등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²⁷⁾

더욱이 최근의 로맨스는 남녀 주인공 사이에 사랑의 발전과정에 중점을 두었던 1970, 80년대의 초기 현대로맨스와 달리 남녀 주인공의 주요 서사(main plot) 외에 다양한 인물들 사이의 하위서사(sub plot)가 추가되는 등 한층 복잡한 서사구조를 지닐 뿐 아니라, 이성애적 가부장제를 온존하는 기존의 낭만적 사랑이라는 문화유산을 넘어 젠더를 비롯해 인종과 계급 등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여성들의 경험과 상상력을 반영하며 근접 장르와 혼종을 이루면서 빠르게 변주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과 SNS 등을 기반으로 가상적 관계를 맺는 현대사회에서 낭만적 사랑은 상

26) Tania Modleski, *Loving with a Vengeance: Mass Produced Fantasies for Women*, New York: Routledge, 1982, pp.45-49.

27) 리타 펠스키,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이은경 옮김, 여이연, 2010, 94-95쪽.

품가치로 치환됐고, 가장 은밀하고 친밀한 섹스마저도 사이버섹스로 대체됨에 따라 이성애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의 판타지도 쉽게 사랑에 빠지고 쉽게 버리는 ‘리퀴드러브(liquid love)’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²⁸⁾ 뿐만 아니라 사랑을 대하는 여성들의 태도 또한 다층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제 로맨스는 BL과 GL 등과 같이 이전과는 현격하게 다른 다채로운 사랑의 상상력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로맨스가 딛고 있는 물질 토대인 가부장적 체제는 여전히 여성에게 모순적이고 강고한 현실이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여성들의 모험적 상상력은 대중매체나 서브컬처(subculture)와 같은 대안공간에서 발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런 매트릭스 안에서 무수하게 생산되는 로맨스는 여성들이 설계하고 기획하는 사랑의 프로젝트이자 여성의 욕망과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여성적 판타지라는 큰 틀의 변이형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여성에게 있어 혹은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로맨스 연구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피비우스의 띠처럼 ‘여성에게 로맨스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출발점으로 되돌아간다. 따라서 가부장적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일탈과 휴식을 얻기 위해 로맨스를 읽는 여성독자들의 미학적 경험에서 ‘보상적 교환성을 충족시켜주는 유토피아적 판타지’를 포착하고 이를 토대로 로맨스와 여성, 가부장제의 함수관계를 살핀 제니스 래드웨이의 연구는 여전히 유효하다.

28) 에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와 소비하기: 사랑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박형신·권호현 옮김, 이학사, 2014, 55-93쪽; 지그문트 바우만, 『리퀴드 러브: 현대의 우울과 고통의 원천에 대하여』, 권태우·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3, 29-65쪽; 박은실, 『로맨스 자본주의: 소비주의와 사랑의 계급화』, 『여/성이론』 제28호, 2013, 42-48쪽.

5. 결론

제니스 래드웨이의 『로맨스 읽기』는 1980년대 초에 발간된 이래 지금까지 대표적인 로맨스 연구서로 손꼽히고 있다. 1980년대 초반은 현대 로맨스의 소비시장이 급부상했을 뿐 아니라 페미니즘을 비롯한 포스트모더니즘이 빠르게 확산됐던 시기였다. 당시 문화연구는 대중문화의 가치를 부정하고 여성의 존재와 목소리를 배제했던 모더니즘에서 이제 막 벗어나는 초기였으나, 『로맨스 읽기』는 문화연구와 문학연구를 조합한 독특한 연구방법론을 동원하여 실제로 존재하는 여성독자공동체의 여성독자들을 대상으로 로맨스 독서의 실태와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로맨스 텍스트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가부장 체제와 로맨스 읽기의 실천적 의미와 여성들의 삶과 가부장제의 함수관계를 밝힌 제니스 래드웨이의 연구를 통해 로맨스 연구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봤다.

2장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가치중립적인 민속지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스미스틴 여성독자공동체를 기반으로 가부장적 체제와 로맨스 읽기의 실천적 의미를 도출하는 과정을 고찰했다. 여성독자들의 로맨스 독서는 부담스러운 가부장적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도피와 탈출의 해방감을 추구하며 로맨스를 통해 행복감과 정서적 구원을 얻으려는 보상과 위로에 있다는 점에서 저자는 로맨스를 ‘보상문학’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로맨스 독서의 의미를 정서적 구원이라는 심리적 보상과 효능에 주목한 나머지 가부장제로부터의 도피와 탈출을 감행한 거부나 일탈의 쾌락을 외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3장에서는, 여성독자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토대로 여성들이 선호하는 로맨스서사의 문법을 밝히고, 이를 다시 낸시

초도로우의 대상관계이론을 인용하여 로맨스 독서전략과 여성의 삶과 가부장제의 함수관계를 고찰하여 로맨스의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했다.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상적인 로맨스는 '만남 → 시련 → 회복 → 해피엔딩'이라는 4단계의 총 13개 서사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성숙한 여주인공의 정체성 불안에서 출발하여 남자 주인공과의 행복한 결합으로 끝을 맺는 '여성 유토피아적 판타지'의 문법을 밝혀냈다. 언제나 미성숙한 여주인공의 정체성 불안으로 시작되는 로맨스의 서두는 어머니로부터 분리되어 사회적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여성들의 불안 시점과도 일치하며, 이는 고립감과 공허감으로 로맨스 독서에 착수하는 여성 독자들의 심리와 일치한다는 것이다. 해피엔딩의 결말은 언제나 여성의 능력으로 부드럽고 배려 깊은 남성으로 변모한 남자주인공에 의한 여성의 본래적 가치가 인정받는 행복한 결합으로 끝을 맺는다. 이런 점에서 로맨스를 여성과 가부장제를 화해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는 결론은 당대 페미니즘 비평가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했던 것이다.

4장에서는 제니스 래드웨이의 『로맨스 읽기』에 대한 당대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의 비판을 중심으로 로맨스 연구의 의미와 과제를 고찰했다. 페미니스트 비평가들은 제니스 래드웨이의 연구방법론에 대해 문화연구자로서의 정체성에 기울어진 나머지 로맨스 연구에서 필수적인 가부장제의 모순적 현실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문화정치적인 분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부분의 여성들이 어릴 적부터 솔하게 로맨스 관습의 문화적 유산을 접하고 자랐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독자공동체의 로맨스 독서체험을 특수한 경험으로 연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처럼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페미니스트 비평가들과 제니스 래드웨이는 로맨스 독서는 '여성적 읽기'이며 로맨스는 여성의 삶과 가부장제의 함수관계를 그린 문학이라는 점

을 공유했다. 다만 평자와 독자 중 누구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혹은 로맨스에 그려진 여성적 유토피아 판타지를 무엇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최근 들어 여성들이 처한 삶의 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로맨스를 읽는 여성독자들의 의식과 상상력도 다채롭게 변모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로맨스에 그려진 여성 유토피아적 판타지도 그 이전과는 현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그럼에도 거시적으로 보면 가부장적 체제 안에서 여성의 삶은 여전히 모순적이며,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여성들의 모험적 상상력은 대중매체나 서브컬처와 같은 대안공간에서 발현되고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여성에게 있어 로맨스란 무엇인가, 아울러 로맨스 연구의 의미와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 로맨스 소비시장의 확대가 로맨스 연구를 촉발시켰던 1980년대를 되돌아보면, 최근 웹소설과 웹툰 등의 서브컬처를 중심으로 로맨스 소비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현상은 로맨스 연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앞으로 로맨스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Janice A. Radway,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9.

2. 논문과 단행본

리타 펠스키, 『페미니즘 이후의 문학』, 이은경 옮김, 여이연, 2010.

박은실, 『로맨스 자본주의: 소비주의와 사랑의 계급화』, 『여/성이론』 제28호, 2013, 32-58쪽.

손희정, 『여성이론가, 타니아 모듈스키』, 『여/성이론』 제17호, 2007, 104-119쪽.

송승철, 『대중문화의 불온성 논쟁: 제니스 래드웨이의 문화연구의 고찰』, 『영미문학 연구』 제1권, 2001, 1-14쪽.

_____, 『이론과 문화연구: 양자의 갈등과 한국영문학의 좌표』, 『비평과 이론』 제11권 2호, 2006, 29-48쪽.

양석원, 『로맨스와 미국소설 비평, 역사와 상상력의 변증법』, 『근대 영미소설』 제5집 1호, 1988, 95-122쪽.

에바 일루즈, 『낭만적 유토피아와 소비하기: 사랑과 자본주의의 문화적 모순』, 박형신·권호현 옮김, 이학사, 2014.

유영종, 『미국문학의 로맨스소설 이론』, 『안과 밖』 제4권, 2003, 201-227쪽.

지그문트 바우만, 『리퀴드 러브: 현대의 우울과 고통의 원천에 대하여』, 권태우·조형준 옮김, 새물결, 2013.

질리안 비어, 『로망스』, 문우상 역,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타니아 모듈스키, 『여성 없는 페미니즘』, 노영숙 옮김, 여이연, 2008.

허버트 J. 갠스,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강현두 역, 남남출판, 1998.

Ang, Ien, *Watching Dallas: Soap Opera and the Melodramatic Imagination*, London: Methuen, 1985.

Brunsdon, Charlotte, "Pedagogies of the feminine: feminist teaching and women's genres", *Screen*, 32-4, 1991, pp.364-381.

Coward, Rosalind, *Female Desire: How they are sought, bought and packaged*, New York: Grove Press, 1984.

Melton, James Van Horn, *The Rise of the Public in Enlightenment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로맨스, 여성, 가부장제의 함수관계에 대한 독자반응비평 / 이정옥 381

Modleski, Tania, *Loving with a Vengeance: Mass Produced Fantasies for Women*,
New York: Roulledge, 1982.

Abstract

Reader-Response Criticism about the Functional relation of Romance,
Women and Patriarchy

-Based on Janice A. Radway's *Reading the Romance: Women, Patriarchy
and Popular Literature*

Lee, Jung-Oak(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d the meaning and task of romance research with a focus on *Reading the Romance*(1984) by Janice A. Radway. This book, which analyzes romance texts by examining the situation and meaning of reading romance by women readers integrating between cultural studies and literary studies, is one of the most popular studies on the romance genre.

Radway scrutinized the practical significance of reading romance in a community of women readers. Through a study involving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s, she found that for women, romance reading is a 'compensatory fiction' that brings happiness and emotional redemption through a sense of liberation achieved by escaping from patriarchal daily life. The romance that women prefer is composed of 4 stages and 13 divisions: 'Encounter → Attest → Recovery → Happy End'. It also maintains a formula that begins with an immature female character's identity crisis and ends with a blissful union that recognizes the intrinsic value of the main character, who has turned into a man who is considerate of the women. Therefore, romance plays the role of pursuit of the 'female utopian fantasy' and at the same time a reconciliation of women to patriarchy.

Feminist critics of the day criticized this argument. However, reading romance is a 'feminine reading', and romance is literature about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women's lives and patriarchy. Yet the interpretation could differ depending on the different viewpoints and definitions of the women's utopian fantasy.

In recent years, the conditions of female reader's lives, awareness and imagination have been changing rapidly. As a result, the female utopian fantasy has also changed significantly. Nevertheless, women's lives in the real patriarchal system are still

contradictory, and their adventurous imagination is spreading in alternative spaces such as the subculture. In this regard, the question is about the definition of romance and the meanings of romance research are still important task.

(Keywords: romance, reading romance, patriarchy, community of women readers, female utopian fantasy, compensatory fiction, compensatory interchangeability, patriarchal marriage)

논문투고일 : 2019년 7월 11일

논문심사일 : 2019년 8월 5일

수정완료일 : 2019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 : 2019년 8월 14일